



돈육소비 범국민운동 전국 자전거 캠페인을 마치고

권 윤 혁

(건국대 축산과 4년)

「이 땅 농민의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이것은 우리 농축산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호일 것이다.

현재 「1차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간산업이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말도 서서히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창 젊은 나이에 일할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해 이직하고 또는 자살하는 것이 현재의 농촌 실정이 아니겠는가?

흙을 사랑하며 흙에 묻히겠다는 아주 작은 꿈을 가지고 축산대학에 입학한지 어언 4년, 시간이 흐를수록 암담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농촌이 싫다는 표현보다 이 현실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

작년 12월 23일 선배님으로부터 양돈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감명 깊게 듣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이것이구나, 내 생을 여기에 걸어도 조금도 후회가 없겠구나라는 확신과 주마다 월마다 변하는 돈가(豚價), 또한 예상되는 수입자유화에 대한 전 축산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조금이나마 이 한 몸 불사를 수 있다면 이치럼 뜻있는 일이어디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한참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거리로 뛰어나와 민주화를 외치는 것보다 더 가까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민주화의 첩경이라 할 수 있겠다.

학교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한자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만,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게 무엇인가 몇 번이나 반문했던가! 이러한 생각끝에 농축산인들의 대변인이 되어 보자고 결심하였다. 생각끝에 자전거로 전국을 돌면서 돈육소비촉진 및 수입자유화 반대운동을 벌려 보자고 계획을 정했다. 곧, 문서화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선배님께 이 사실을 알려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다. 선배님 역시 좋은 반응과 함께 여러가지 충고를 주셨으며, 그리고 학교선배들과 몇몇 축우(畜友)들의 의견의 일치로 박홍양 교수님을 지도교수, 대한양돈협회 회장님을 고문으로 위촉, 돈육소비 범국민운동 전국 자전거 캠페인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러한 과정하에 모든내용을 컴

퓨터에 입력, 문서화 해서 육가공공장, 기업양돈장, 사료업체에 우리의 취지를 설명했으나 냉담한 반응으로 실의에 빠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양돈협회와 연계를 맺으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또한, 주위의 동기, 선배, 후배들의 격려는 우리들의 행사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이러한 것이 더욱 더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점차적으로 자금 확보를 하고 양돈협회 홍보부 분들과 많은 토의를 가지면서 이번 행사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반면 축산대학 재학생들에게 우리의 취지를 공고하고 우리와 동참할 23명을 체적이 건장하고, 앞으로 농촌에 들어가 휴과 함께 생활할 성실한 학생을 뽑았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한된 인원에 많은 참가자 때문에 탈락된 축우들에게 지면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자금과 차량을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기업에서, 현재 계란값이 하락세이니까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를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원들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밀고 나갔다. 자전거 구입비가 없으면 집에서 타던 자전거로, 유니폼이 없으면 학교 티셔츠를 입고... 이때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7월 5일부터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운명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체력단련과 토의로 27박 28일의 긴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한 실마리를 풀어 나갔다.

드디어 7월 9일 오후 2시 동송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우천속에서 코믹 투우와 농악대의 아낌없는 지원, 그들에게 감사 드린다. 지도교수님께 선서후 1,300.4km를 달리는 대장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계속적인 장마로 대원들의 몸은 지쳤으나 눈동자 만큼은 그러하지 않았다. 「이 땅 농축산인들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리는데 이 한몫 가루가 된들 어떠하랴!」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70여 km를 달리면서 우천시는 마을 회관, 노인회 또는 양돈협회 지부 회원들의 숙식제공으로 하루를 달렸고 맑은 날씨 때에는 대개 야영을 했다.

첫번째 사고가 났다. 문경새재에

서 이화령 고개를 넘을때 삼중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대원들의 정신 집중게기가 한번더 시행되었다. 가장 기억이 남는 야영 장소가 생각난다. 경남 하동 섬진강 하구에 야영을 했다. 대원 몇 명이 물고기를 잡아 와 얼큰한 매운탕에 소주잔을 곁들였다. 모든 피로감을 뒤로 하고 새벽1시 강주위 경호원들의 싸이렌 호각소리에 잠을 깨고 야영을 철수했다. 물론 굶은 소낙비 때문이었다.

장마, 폭염, 태풍 등의 모든 악조 건하에서도 단 1명의 낙오자 없이 계획대로 홍보활동을 폈다. 시식회가 끝난뒤 살풀이로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유도시켰다. 살풀이의 굿판을 보면 「바울라 신이여 당신은 왜 우리 농민을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농민을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격렬한 굿판을 벌인다.

서서히 우리의 활동이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시켜 나갔다. 또한, 양돈협회 지부 회원들



과 양돈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열렬한 환영과 동참은 시간이 지날수록 끈끈하게 맺어져 갔다. 전북대 축산과 학생들의 농악팀들도 그러하고 중간중간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의 격려는 폐달에 윤희유 역할을 해 주었다.

행사는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정확한 날짜와 별 오차없이 시간도착으로 양돈협회지부 회원들에게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일정은 이천(7.1), 김천(7.13), 대구(7.15), 부산(7.18), 김해(7.20), 순천(7.23), 목포(7.26), 광주(7.29), 전주(7.31), 대전(8.2), 평택(8.4)을 경유 수원, 안양 드디어 종착지인 본교에 4시에 입성해 축우인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2명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저 와 있었으며, 나머지 대원들은 검게 그을린 얼굴로 더욱 건강하게 무사히 도착해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이렇게 해서 27박 28일 동안 전국 1,300.4km를 돌면서 돈육소비 범국

민 운동은 나와 대원들의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생(生)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뿌듯함을 쉬이 가지지 않으리라. 모든 대원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농축산인들 특히, 양돈인들의 주름살 하나 정도는 펴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굳게굳게 손을 잡고 본교 축산대학가인 "흙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아뭏든 이 행사로 인해 나의 바람은 고기소비가 늘어나 국민건강 증진 및 체위향상에 이바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1인당 돈육소비가 약 9kg에서 하루 아침에 1~2kg 정도 늘지 않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운동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론과 실체가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나의 사견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공산품의 수출로 인한 국가 경제력 보완을 축산물 수입

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축산물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농민들과 호흡하면서 현재의 농촌 실정을 파악해야 한다.

세째, 농축산인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법은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하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되는 사료의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서서히 자급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네째, 기업 양돈장의 진출을 막고 영세 양돈장을 보호해야하며, 기존 기업양돈장은 수출 및 육가공품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다섯째, 농협·축협 등 농민 단체는 자주적인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섯째, 양돈산업은 계통조성 등으로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육종시키면서 등급제 판매실시가 정착되어야 한다.

대충 두서없이 나열해 보았지만 어느정도 타당성 있고, 실현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양돈협회 관계자와 축산신보, 축산대학 교수님 동문 선후배, 그리고 양돈협회 각 지부 회원님과 이 행사를 적극 도와주신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땅의 농민이 영원히 웃을 수 있는 터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함께 할 돼지 곁으로 떠나린다. *